

자율형 사립고 지정 철회 소동, 보문고 정형래 이사장

## 과원교사 공립 받아준대서 자사고 시작

### 절충안 합의된 만큼 학교 정상화에 총력

600명 수용 기숙사·장학금 누적액 2억4000만원 “교육환경 최상”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을 했던 보문고가 지난 16일 자사고 운영을 계속하기로 광주시교육청과 합의, ‘자사고 반납사태’가 일단락됐다.

보문고의 운영재단인 보문학습 정형래 이사장은 “애초 과원교사를 공립학교로 떠나준다는 약속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자사고 전환을 신청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교육청과 합의가 이뤄진 믿음 학교를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보문고 사태를 촉발한 과정과 학교 정상화를 위한 재단의 입장은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학생들의 전학 대책은.

▲학교를 빨리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동요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2학년은 거의 이동이 없다. 1학년도 학교와 재단의 진정성을 안다면 이 상황은 곧 진정될 것으로 본다.

재단이 보문관(기숙사)을 신축하는데 70여억 원을 투자한데 이어 올해 12여억원의 운영자금을 투입한 사실을 알게되면 단기간內 학교와 재단에 대한 신뢰는 회복될 것이다.

-왜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했나.

▲현재 재학중인 1,2학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였다. 시교육청에서 위법이라고 하지만 당시 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시 과목 과원교사 16명의 공립 특별채용을 전제했었다. 이 전제가 없었다면 자사고 신청도 없었을 것이다. 현 교원수급 체계로는 현재 1,2학년 학생들에게만 자사고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교육부 차원에서 최선의 선택일수 밖에 없었다.

-신입생 정원 미달 원인은 무엇인가.

▲거시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영향, 미시적으로는 학교의 발전 가능성을 저평가한 데서 비롯됐다고 본다. 광주 3개 자사고 가운데 수년 전부터 특목과 전환 준비를 해온 학교는 보문고뿐이었다. 두차례에 걸친 외국어고등학교 신청에서 모든 부분이 통과됐지만 교사 특별 채용문제에서 항상 발목을 잡혔다. 교사수급 문제가 결국 아킬레스건이었다.

-과원교사를 공립으로 보내면 교육과정이 정상화되나.

▲보문고의 교육과정 운영상 국·영·수 단위수가 일반계 학교보다 2배나 많다. 그만큼 많은 양의 학습과 밀도 있는 수업을 하고 있다. 원래 16명의 과원교사를 해소해야만 완벽한 교육과정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일단 9명을 특제해간다는 시교육청 약속을 받았다. 향후 부족한 교원 수급은 자연 감소에 따른 충원, 학교 재정여건에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학교 인정화를 위한 대안은.

▲보문고의 경우 광주는 물론 전국에서 재정자립도에서 최우수 그룹에 속하는 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매년 출연하는 법정부당금을 100% 납부하고 있다. 학부모·학생들과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6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4인 1실의 명품기숙사를 준공, 운영하고 있다. 개교 이래 장학금으로만 누적금액 2억4000여만원을 자제로 출연했다. 그 만큼 튼튼한 재정이 학교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에 교사수급 문제만 해결된다면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지금까지 해온 지식교育과 함께 창의력과 인격수양을 목표로 융합형 인재 양성에 혼신을 다하겠다. 자사고 만의 교육과정을 수행·완성하기 위해 최상의 교육 환경을 만들 것이다.

한편, 시교육청과 보문고는 지난 16일 보문고 학급감축에 따른 과원교사 해소를 위해 9명의 교사를 공립으로 특제키로 합의했다. 다만, 보문고의 자율형 사립고의 지속적인 운영을 전제로 하며, 일반고 전환시에는 교육공무원 임용을 취소키로 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이번에 교사수급 문제만 해결된다면 교육프

## 농어촌 찾아다니며 묵묵히 10년째 봉사

### 고구려대 치위생과 학생들 매년 6차례 활동

고구려대학 치위생과 학생들이 10년 가까이 의사 손길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을 찾아 다니며 무료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고구려대 치과 의료봉사 동아리 ‘아우름’은 지난 2004년 치위생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결성, 매년 6차례 정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우름’ 회원은 총 120명으로, 봉사 활동 참여는 개인이 원하는 시기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택하고 있다.

/채희증기자 chae@kwangju.co.kr



## 호남대 승마산업 선도

### 스포츠시설경영·전문인력

#### 27일부터 3개월간 교육키로

호남대학교 스포츠산업인력개발원(원장: 조규정)은 오는 27일부터 ‘스포츠시설경영 및 승마산업 전문인력과정’을 진행한다.

지난 2009년부터 4년째 실시되고 있는 호남대의 스포츠산업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은 스포츠산업진흥법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개설된 ‘스포츠시설경영 및 승마산업 전문인력과정’은 지역 스포츠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미래 승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8월 27일~11월 21일 까지 약 3개월간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아침)과 격주 토요일(주간)에 수업이 진행된다.

스포츠산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과 학생, 스포츠시설경영과 승마사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이며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수강신청은 오는 27일까지 호남대학교 스포츠산업인력개발원 홈페이지(<http://hsi.honam.ac.kr>) 기타 교육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호남대학교 스포츠산업인력개발원(062-940-3706)으로 하면 된다.

〈시민기자 주영수〉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http://www.kwangju.co.kr)

## 방과후 전문교사 양성기관 출범

‘대한 방과후 교육협회’ 창립 광주·전남지부 구성키로

교육당국의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확대에 맞춰 광주·전남지역에서 전문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 출범했다.

‘대한 방과후 교육협회’는 최근 광주교육대학교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올 2학기부터 광주·전남지부를 구성키로 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방과후 교육은 사교육비 증가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학교 정규수업 이후에 이뤄지는 교과보충수업, 교과 외 활동을 가리킨다.

대한 방과후 교육협회는 방과후 교사 수요가 늘면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이들도 늘고 있다고 한다.

한 과목을 개설할 것으로 알려져 평생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는 장점이 있다. 또 업무 강도가 높지 않고 근무시간이 짧은 데다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여성들에게 인기 있다.

특히 사교육 절과 공교육활성화를 위한 정책 확대 등으로 방과후 교사 수요가 늘면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이들도 늘고 있다고 한다.

대한 방과후 교육협회 관계자는 “방과후 교사는 대학에서 배운 전공 또는 자신의 취미를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활용하는 등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문의 062-268-0978, 019-431-6457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조선대 내진설계 경진대회 3위 입상



았다.

전태인·고재우·김민주·손소연 학생(지도교수 최재혁)으로 구성된 Home Keeper 팀이 (사)한국면진제진협회가 주최하고 국토해양부가 후원한 2012년 구조물 내진설계 경진대회(Seismic structure design contest 2012)에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상(3등)을 받

았다.

전태인·고재우·김민주·손소연 학생(지도교수 최재혁)으로 구성된 Home Keeper 팀은 학교 건축물 내진설계 해 지난 주민들이 응급 피난할 수 있는 대피 시설로 활용토록 하는 개념의 작품을 제출했다. 〈조선대 제공〉

금주외 700여명 참가…

‘국제화’…

</div